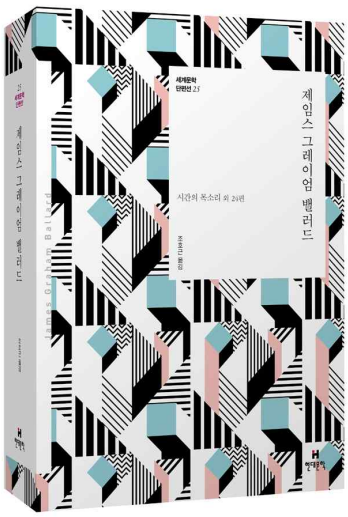
‘우리는 거대한 소설 속에 살고 있다.’



병리학적인 현대 문명의 예언자
문체와 형식의 우아한 선지자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1930~2009)

세계문학 단편선 25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

시간의 목소리 외 24편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 지음 | 조호근 옮김
문학 / 영미 소설 | 724면 | 17,000원 | 2017년 5월 19일 현대문학 발행

《타임스》 선정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 50인', 그리고 카프카Kafkaesque나 보르헤스Borgesian처럼 성姓의 형용사형만으로 설명 가능한 몇 안 되는 문인 중 한 명인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의 대표 단편소설이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선」 스물다섯 번째 권으로 출간되었다. 20세기 후반 세계문학사에서 전대미문의 독창적이고 예언적인 목소리로 여겨지는 그는 1960년대 SF 뉴웨이브 운동을 견인하며 소설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함으로써 현대문학을 재정의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고도의 상징성과 시각 이미지를 다용한, 디스토피아적인 예지로 가득 찬 전인미답의 전위적인 작품들은 '현대'에 대한 세계인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책에는 『J. G. 밸러드 단편소설 전집*THE COMPLETE SHORT STORIES of J. G. Ballard*』(2014, 포스에스테이트)에서 옮긴이가 가려 뽑은 스물다섯 편을 실었으며, 평론가 애덤 서웰의 「해제」가 밸러드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

밸러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0년 전 중화민국 상하이 조계租界에서 태어났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민간인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종전 후 영국으로 송환된다. 대학에서 의학과 영문학을 공부했으며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인생의 전반前半을 비/초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의 극한상황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치외법권에서 보낸 유복한 유년기, 전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투했던 수용소에서의 사춘기, 활자로만 접했던 모국에의 첫 방문에서 받은 문화 충격과 '잿빛의 춥고 흐린' 전후戰後 영국에서의 청년기, 비행 훈련, 고속도로로 둘러싸이고 히스로 공항의 끊임없는 확장으로 타격을 받은 런던 교외에서의 생활, 아내의 비극적인 요절 등은 그의 존재 깊숙이 시간과 공간의 교란된 감각, 강박과 불안이라는 상흔을 남겼다. 개인과 사회의 무수한 파국을 마주하며 밸러드는 '소설은 이미 거기에 존재하므로 작가의 임무란 리얼리티를 창조해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떤 작가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의 극단을 묘사했고 모순으로 가득한 20세기 후반의 인간 존재 방식을 표현하려 했다. 그의 트라우마는 이미지의 반복으로 나타났는데 저공비행 항공기, 박살 난 자동차, 물 빠진 수영장, 버려진 호텔, 황량한 해변, 악취가 진동하는 강과 석호, 감정을 잃은 반쯤 미친 주인공 등 동일한 모티브가 다른 외피를 입고 변주된다.

그는 현대 문명의 병리학적인 잔혹상—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소비사회, 미디어 과잉으로 인한 생활의 통제, 음모론이 판치는 정부 간 이데올로기 담론, 과학기술의 비인간화 등을 동일한 폭력의 다른 형태로 간주하고,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다

‘에로스’와 ‘타나토스’ 같은 강렬한 이미지에 매료되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냉정하며 분석적인 시선으로 묘사했다. 주인공이 경험하는 세계는 마치 ‘오브제’처럼 독특한 비유를 사용한 문체로 그려지고 주인공은 그 세계를 흘러가며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유일하게 진정한 외계 행성은 지구’라고 이야기해 왔던 그는 외부 환경과 인간의 내면에 펼쳐지는 의식/무의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SF의 우주 개념을 ‘내우주inner space’로 전환시킴으로써 문학성을 꾀했다. 이와 같은 밸러드만의 문학적 특수성은 형용사 ‘밸러드풍Ballardian’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사전에 등재되었다. 『콜린스 영어사전』에 따르면 ‘밸러드풍’은 ‘J. G. 밸러드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에서 묘사된 환경—특별히 디스토피아적인 현대성, 암울한 인공 경관, 기술적이고 사회적 혹은 환경적 발전의 심리적인 효과—과 유사하거나 연상시키는’이다. 『영국인명사전』 항목에는 밸러드의 작품에 대해 ‘에로스, 타나토스, 대중매체와 신기술’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 내게 단편소설은 항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순간을 포착해 내고, 단 한 가지의 주제를 맹렬히 파고들 수 있게 해 주는 특성도 마음에 들고, 이후에 장편으로 발전하게 될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기에도 적합하다. 내가 쓴 모든 장편소설은 단편소설에서 시작되었다. […]
>
>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 후기」에서

백과사전 외판원, 코번트가든 짐꾼, 과학 잡지의 편집자와 필자로 일하다가 1956년 첫 단편소설을 선보인 이후로 50년간 발표한 모든 단편소설 중에서 스물다섯 편을 엄선한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는 상상으로 충만하고 환상으로 가득한 밸러드의 걸작 단편소설을 연대순으로 접할 수 있어 그의 궤적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장편소설로 진전되는 주제와 강박관념을 창안하고 발전시켰던 단편소설은 그의 전 작품 세계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대개 밸러드의 단편소설은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초밀집 도시(「빌레니엄」), 에네웨타크의 버려진 벙커(「종막의 해안」), 꿈과 광기와 권태가 지배하는 휴양지 버멀리언샌즈(「스타스 가, 5번 스튜디오」「스텔라비스타의 천 가지 꿈」) 등과 같이 곧바로 독자를 어떤 환각적인 환경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결국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현현顯現으로 막을 내린다.

밸러드의 초기 단편은 각각이 짧은 세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우선 자연의 성질이 끔찍한 변화를 겪고 묘하게 과학기술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SF 시기라고 부를 만한 연대가 존재한다. 두 번째 연대에 들어서면 밸러드는 시간과 공간에 손을 대며, 존재의 깊숙한 본질까지 파고들어 변조를 시작한다. 세 번째 연대에 이르면 그의 상상력은 더욱 종말론적 색채를 띠는데, 자연재해의 예언이 작품 속에 가득해진다. ‘밸러드풍’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예언적 디스토피아의 화풍이 완성된 것은 1960년대 중반 들어서이며, 이 단편들은 초현실적이고 대단히 함축적이다. 이들의 중심 주제는 어디까지나 디스토피아 그 자체이며, 주인공 또는 화자는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해악을 시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종막의 해안」(1964)에 이르러 비로소 작품은 기존의 틀을 벗어던지는데, 그의 디스토피아는 더 이상 미래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인물의 내면과 외면을 오가고, 독백과 대화의 경계를 규정할 수 없는 서술 방식이 그 뒤를 받쳐 준다. 예언적 현재가 미래를 대체하고, 문체와 형식이 개념을 따라잡으며, 이후 작품들에서 펼쳐질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밸러드의 후기 단편에서 디스토피아는 부차적인 주제가 된다. 이제 전산화된 경제, 테러,

독재정치, 시시한 외설물 등 현대적인 분위기의 무대에서 우주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그는 다양한 장르와 서술 방식을 넘나들면서 현실의 모순을 직접 묘사하고 재단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속에 보이는 일부 작품들에서 디스토피아는 개인 안으로 침잠해 들어간다. 세계는 담담하게 파국을 향해 나아갈 뿐, 그 원인은 피상적으로만 제공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고통은 현실과 갈등을 빚는 주인공의 내면에만 존재하며,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조차 빈 수영장의 표의문자처럼 피상적인 존재로만 묘사되기에 이른다. 밸러드풍 디스토피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두 단편 「우주 시대의 기억」(1982)과 「근미래의 전설」(1982)에서, 디스토피아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 지구적 규모의 신경증이나 다름없다. 밸러드의 단편에서 가장 긴 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작품들, 모텔과 우주여행과 암살 시도로 가득한, 무너져 가는 세계의 휘황찬란한 풍경이었다.

> […] 그의 무대 창조 능력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생태 구역도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가 총체적 의도, 총체적 인물을 다루는 이유는 20세기의 존재 방식이 개인을 보다 거대한 환경의 일부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며들어 오는 광고와 증권 거래와 전산화된 현실 역시 그렇다. 그는 우리 시대의 삶의 구획을, 거대한 교외 지역을 구성하는 추상적인 공간을, 제방과 공터를 훌륭하게 묘사한다. 이런 관념적인 일상,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야말로 밸러드가 선호하는 지형이다. 이는 작은 야자수가 솟아 있는 콘크리트 해변일 수도, 다른 행성일 수도, 미래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실험실일 수도 있다.
>
> 애덤 서웰의 「해제」에서

기묘할 정도로 형식에 집착하는 산문을 통해, 밸러드는 모든 고전적 형식이 없어진 세계에서 인물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지를 묘사한다. 기존 소설의 근원은 고립된 인물과 그 인물이 보이는 여러 관례 및 자아의 모습에 있지만, 밸러드 작품의 경우에는 중심인물이 훨씬 큰 존재로, 불가해하며 그간 무시되어 온 사회와 환경의 강압 그 자체로 드러난다.

당시의 독자들에게 밸러드가 발표하는 모든 작품은 새로웠다. 그는 「잠재의식 인간」(광고)과 「감시탑」(감시하는 국가) 등에서처럼 단편소설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자신은 'SF에서 선호하는 만들어진 미래가 아니라, 다가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진짜 미래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고, 미래 발전을 예측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세계에 대하여 썼다고 주장하면서 판단을 거부했지만, 현대의 삶은 놀랍고도 골치 아픈 방식으로 그의 상상과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 《가디언》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남자는 떠났지만, 그의 이상한 세계는 남아 있다.'

'나는 나의 작품을 경고로 본다.
나는 길옆에 서서 "속도를 줄여!"라고 외치는 바로 그 남자다.'

- 어마어마한 창의력의 작가. 밸러드는 칼비노처럼 현대의 삶의 공허하고 박탈당한 공간을 상상의 보이지 않는 도시와 경이로운 세계로 채우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 맬컴 브래드버리(작가 · 문예평론가)
- 영국이 배출한 진정한 초현실주의 작가. 섬뜩하면서도 짜릿한 상상력의 소유자이자, 국보國寶다. 《가디언》
- J. G. 밸러드에 대해 우선 하고 싶은 말은 그가 최고의 SF 작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말할 것도 없이 당대 최고의 작가다. 앤서니 버지스
- 문체와 내용의 선지자. 가히 문학에서의 살바도르 달리나 막스 에른스트라 할 만하다. 《워싱턴 포스트》
- 밸러드는 실로 문학적 초현실주의자이며, 그의 몽환적인 내러티브는 카프카의 더욱 음울한 우화들,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 조지 오웰의 『1984』, 그리고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과 윌리엄 버로스의 『네이키드 런치』를 연상시키는 정신분석학적 강렬함을 보인다. 마이클 더다
- 영국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참신한 작가. 주류 소설의 진부한 관습에 지친 이들에게 극한상황에서의 정적인 시간과 황량한 아름다움, 개인의 충족을 이야기하는 밸러드의 단편소설은 순전한 기쁨으로 다가오리라. 존 그레이(작가 · 정치철학자)
- 지금이 허무주의의 시대가 아니며 밸러드가 이 병적인 현대성의 이상적인 기록자가 아니라고 누가 주장할 텐가? 그의 단편소설을 읽는 일은 특별히 풍요로운 경험이다. 《옵서버》
- 이 단편소설들은 지금의 우리 모두가 '포스트 밸러드'라는 사실을 적시한다. 우리가 그를 넘어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 의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정의된 채 남아 있다는 의미다. J. G. 밸러드의 SF는 예지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각을 제시한다. 없어서는 안 되는 작가. 차이나 미에빌
- 밸러드는 이국적인 상징과 심리적인 통찰을 결합시켜 영어권에서 가장 정련되고 농밀한 산문을 창조해 냈다. 마이클 무어콕
- H. G. 웰스의 가장 창의적인 후계자. 킹즐리 에이미스
- 밸러드의 단편소설은 한 편 한 편이 당신이 가진 그 어떤 꿈보다 더 완벽하게 실현된 꿈과 같다. 궁극적으로 밸러드는 그야말로 장인匠人 소설가, 단일한 관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완전무결하고 복잡한 조각품처럼 언제까지고 기억에 남을, 언어로 이루어진 공예품의 제작자다. 조너선 레섬
- 소년인 나는 J. G. 밸러드를 사랑했다. 10대였던 나는 J. G. 밸러드를 사랑했다. 그리고 어른이 된 나는, J. G. 밸러드를 사랑했다. 닐 게이먼
- 밸러드는 문단에서 몇 안 되는 진정한 초현실주의 작가이며, 가장 불편한 현실에 대한 핫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높은 수준의 그의 산문은 빈틈없이 들어찬 이미지의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수은과 같이 밀도 높고 영롱하며, 소설보다 낯설다. 앤절라 카터
-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이 단편소설들은 비옥한 대지의 끝에 세워진 기념비다. 밸러드는 결코 지루하지 않으며, 절대 창작력이 쇠하지 않는 걸출한 작가다. 그의 세계는 너무도 터무니없어서 그가 이국의 몽상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프카나 보르헤스와 마찬가지로, 그의 가장 기이한 비현실은 보다 평범한 존재의 어떤 근원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것들은 끝내주는 거짓말과 같다. 심오한 진실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 한결같이 독창적이고, 예상을 뛰어넘는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 J. G. 밸러드는 창작의 다양성과 서술 언어의 풍성함으로 유명하다.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 J. G. 밸러드는 동시대를 무대로 삼은 마술사이자 문학적 파괴자다. 그의 환상적인 풍경은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 어떤 작가도 이토록 황홀한 명징함이나 기이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 이언 톰프슨

- 밸러드의 환상세계는 광인의 논리와 예술가의 감성으로 탐구된다. 《뉴스테이츠먼》
- 본연의 상상력을 점차 상실해 가는 왜소한 세계에서 J. G. 밸러드는 홀로 우뚝 서 있다. 선견지명을 가진 희대의 이단아로서. 《아이리시 타임스》
- J. G. 밸러드의 작품은 잘 빚어진 단편소설의 힘을 알게 해 준다. 그는 옛 대가가 어떻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아끼지 않고 짧은 글에 생기를 불어넣는지 거듭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해 다방면의 전통에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영향을 주었다. 이 작가는 스티븐 밀하우저, 필립 K. 딕, 윌리엄 버로스 등을 떠오르게 한다. 《북마크스 매거진》
- 현대문학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고, 개성적인 상상력. 윌리엄 보이드
- 경이롭다. 밸러드를 읽을 때면 좀 부끄러워진다. 대체 세계를 발견하지 않고는 다섯 쪽을 쓸 수 없는 신선한 상상력을 가진 작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직면해야 하는 까닭이다. 제이디 스미스
- 더없이 놀랍고 결코 경외감이 바래지 않는 J. G. 밸러드와 그의 단편소설에 감사한다. 밸러드의 작품이 비교 불가하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열렬한 독자와 새로운 독자 모두 두루 음미할 수 있는 단편집. 《스펙테이터》
- 밸러드는 지난 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영국 작가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원맨 장르로. 그와 같은 이를 본 적이 없다. 그는 확고부동하게 독자적이다. 그의 크림 같은 경이로운 산문, 심상의 불가사의하고 돌연한 확장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마틴 에이미스
- 그 남자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그는 환상적으로 썼고, 환상적인 작품을 썼다. 라디오헤드부터 게리 뉴먼, 조이 디비전, 심지어 버글스까지 모두가 그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그는 작가로서 나에게도 확실하게 영향을 끼쳤다. G. P. 테일러
- J. G. 밸러드는 현대문학을 재정의했으며, 영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마크 커모드(영화 평론가)
- 이성과 악몽의 결혼, J. G. 밸러드는 '풍요한 사회'의 취약성을 폭로한다. 《시티 저널》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세계문학 단편선〉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장편소설 위주의 관습에서 벗어나 단편소설에 초점을 맞춘 〈세계문학 단편선〉 시리즈는 그동안 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거장들의 주옥같은 작품들과 단편소설이라는 장르의 형성과 발전에 불가결한 대표 작가들을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지구촌 시대에 걸맞게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문학의 변방으로 여겨져 왔던 나라들의 대표적 단편 작가들도 활발히 소개해 단편소설의 발전이 문화의 중심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처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현대 대중문화의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스터리, 호러, SF 등 문학 장르의 분화를 촉진했는데 이러한 장르문학의 형성에도 단편소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한 장르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작가들의 단편 역시 새롭게 조명할 것이다.

21세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편소설은 그리스 신화가 그러했듯이 삶의 불변하는 단면을 촌철살인의 관찰력과 응축된 예술적 형식으로 꾸준히 생산해 왔다. 작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으로 그린 칼로 베

어 낸 듯 날카로운 인생의 다양한 단면들은 시공을 초월해 오늘의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준다. 새로운 문학적 기법과 실험의 도입을 통해 단편소설은 현재도 계속 진화, 확장되고 있다. 작가의 예술적 열정이 가장 뜨겁게 투영된 다양한 개성의 다채로운 단편들을 통해 문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통찰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에드거 앨런 포는 문학작품은 독자가 앉은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세계문학 단편선〉은 중심을 잃지 않고 삶과 사회, 나아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 믿는다.

본문에서

콘래드는 그 말을 무시했다. "총기 소지가 불법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시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나요?"

"당연한 소리 아니냐? 시간을 측정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요?"

"그러면 그 일을 더 빠르게 하도록 만들 수 있잖니."

_ 54쪽, 「크로노폴리스」에서

"박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시간의 목소리고, 모두가 박사님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보다 넓은 견지에서 생각하세요. 박사님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가, 모든 모래 알갱이들이, 모든 은하가 동일한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진정한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시계를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_ 126쪽, 「시간의 목소리」에서

나는 힘없이 그의 옆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2분 만에 설명해 주었다. 오로라가 그에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반쯤은 동정에서 그리고 반쯤은 놀이 삼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가오리의 위험과 난폭함을 설명한 것은 모두 오로라를 부추기기 위해 일부러 한 행동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그가 자신을 희생해 자살할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물론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었지만** 말이야."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 말 믿게. 눈 속에 살의가 담겨 있었다니까. 정말로 자네를 죽이려 한 거야."

트리스트럼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놀란 표정 짓지 마요, 폴. 애초에 시를 짓는다는 건 그렇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_ 207~208쪽, 「스타스 가, 5번 스튜디오」에서

천장을 조작하는 것은 뻔뻔한 집주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속임수였다. 대부분의 거주 공간 평가는 편의상 천장 면적을 측정한 값으로 이루어졌고, 합판 칸막이를 슬쩍 기울이기만 하면 우량

세입자를 위해 칸막이실의 면적을 늘리거나(수많은 부부들이 이런 식으로 속아서 칸막이실에 살게 되었다) 주택 감독관이 방문할 때면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천장은 늘 연필 자국으로 빼곡했는데, 벽 건너편 세입자들과 영토 분쟁을 벌인 자취였다. 소심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짓눌려 사라질 수도 있었다. 사실 '조용한 이웃'을 강조하는 광고는 보통 이런 부류의 약탈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암묵적인 초대나 다름없었다.

_ 214쪽, 「빌레니엄」에서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야말로, 설령 그 반응이 비논리적일지라도 진정한 자유의 기준이라 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하면 프랭클린의 자유는 삶의 중심에 존재하는 온갖 의무의 제약을 받는 피상적인 것이었다. 세 군데에 걸려 있는 주택 융자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수많은 칵테일파티, 온갖 가전제품과 옷과 휴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요일 거의 대부분을 보내는 개인 진료 근무까지. 그가 홀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뿐이었다.

_ 327쪽, 「잠재의식 인간」에서

근처에서 행방불명된 우주선이 발견될 것이라는, 페레이라의 어설프지만 커져 가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코널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아슬아슬한 탈출 이후로 그는 묘하게 차분하고 감정이 흐릿한 상태가 되었고, 당시 눈앞까지 찾아왔던 죽음을 운명으로 여기듯 초연하게 반추했다. 아마존 정글에서 명멸하는 생명의 총량 전체와,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죽음과, 촌락 주변을 둘러싸고 방사형으로 뻗은 정글의 오솔길들을 따라 끝없이 누워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정글의 논리가 그의 정신을 잠식해 들어갔고, 우주선이 이곳에 불시착했을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하게 느껴지기만 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서로 다른 계에 속해 있는 두 가지 요소가 교차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자체가 갈수록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다. 게다가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보다 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라이커가 우주탐사의 '실제' 이유에 대해 물은 이후 더욱 강해지는 생각이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주 계획 자체가 인류의 깊은 무의식에 숨겨진 질병의 발현이고, 우주선이며 인공위성을 띄운 것은 그런 기구의 비행이 인간의 내면에 파묻혀 있는 특정 충동과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정글에서는, 무의식이 발현되고 드러나게 되는 이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욕망을 광기에 실어 표출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아마존이 우주 비행의 성공이나 실패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될 수 있다는 가정은, 일종의 정신적인 시차를 고려하면 갈수록 흐릿해지고 멀어지기만 했다. 사라진 캡슐 그 자체도 부서지는 거대한 환상의 파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_ 384~385쪽, 「재진입의 문제」에서

다음으로 해변을 방문한 것은 사흘 후였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하던 일로 돌아갔고, 거인을 계속 관찰하고 소식을 알리는 일은 내 몫으로 돌렸다. 어쩌면 내가 이번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다시 해변에 가 보고 싶어 몸이 달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시체애호증과는 다른 종류의 관심이었다. 내게 있어 그 거인은 아직 살아 있는 존재, 심지어 그를 구경하는 사람들 중 몇몇보다 더욱 살아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토록 그에게 매료된 이유 중에는 그의 놀라운 규모, 사지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도 있었다. 보고 있으면 그 존재로부터 나의 왜소한 사지의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삶의 다른 모든 요소가 의심

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 거인은 생사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존재이며, 해변에 모인 우리 불완전하고 하찮은 구경꾼들이 그와 비슷한 절대적인 존재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였기 때문이다.

_ 463~464쪽, 「거인의 익사체」에서

최초로 벌어진 일련의 상표권 분쟁이 진정된 후(한 일본인 사업가가 역사 자체의 상표권을 등록하는 일에 거의 성공할 뻔했다. 이후 시간은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되었다), 시간 여행에 따르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주의 물리법칙이 아니라 제반 시설을 건설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자금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로의 사파리 여행에는 분당 거의 100만 달러의 돈이 들어갔던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형, 「마그나 카르타」 서명,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의 단기 탐사를 수행하고 나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린스턴 대학교 아인슈타인 기념시간센터조차도 더 이상 시간 여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과거로의 여행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조직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전 세계의 거대 텔레비전 방송국들이었다. 그들이 과도한 선정성을 지양할 것이라 맹세하자, 정부 지도자들 또한 그런 텔레비전 여행기의 교육적 효과가 지닌 장점이 심미적으로 끔찍한 결과물이 나올 위험을 감수할 정도는 된다고 설득되기에 이르렀다.

_ 478쪽, 「지상 최대의 텔레비전 쇼」에서

굴드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도 기형이 아닐세. 카르멘과 마찬가지야. 우리가 모두 진실로 받아들인, 소위 말하는 '인구 감소'와 마찬가지인 걸세. 사실 감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 친자 살해라는 도덕적 쇠퇴가 있었을 뿐이지. 지난 50년 동안 출산율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했으니까." 포리스터가 항변하기 전에 그는 말을 이었다. "잠시만 열린 마음을 가져 보게나. 성행위 빈도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가임률은 유례없을 정도로 높지 않은가. 심지어 자네 아내도 일곱 차례나 출산을 했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방대한 교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거라네. 애석하게도 교체되어 사라질 존재는 바로 우리겠지만. 우리의 임무는 그저 우리 후손들로 세상을 채우는 것뿐이지. 우리가 고독을 필요로 하고, 홀로 있으면서 극도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절망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은 아마도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작별 인사가 아닐까 싶다네."

_ 525쪽, 「저공비행」에서

10월 동안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월말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서 세계신앙연합회의 두 번째 총회가 열렸다. 여기서 영향력 있는 대주교 한 명이 신을 중립적인 거대 지성체로 여기는 과학적 관점에 대해 공공연한 비판을 쏟아 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그런 인식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조잡한 관측 장비를 사용한 결과에 따른 순진하고 과도하게 단순화된 관점일 뿐이었다. 신이 완벽하게 수동적인 존재일까, 아니면 바다처럼 온갖 형상과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일까? 마니교의 이단 교리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대주교는 옛날부터 인간과 자연 모든 곳에 선악의 양면성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악이 본질적으로 인간 천성의 일부라거나 인간이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 수동적으로 숙고하는 일에 눈이 멀어 스스로에 적대감을 가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생겨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한 업적, 통상과 예술과 산업은 인류의 양면성과 동기를 건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 들어 문명적인 삶이 쇠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인류가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절대자와 지나치게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회개를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것이다.

_ 537~538쪽, 「어느 절대자의 탄생과 죽음」에서

어떻게 봐도 셰플리의 죽음은 우주에서 일어난 첫 살인 사건이었다. 맬러리가 연출하고,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환영한 파국이었다. 우주 비행사가 저지른 살인과 뒤따른 대중의 불안은 우주 시대의 종막을 상징했다. 인간이 우주로 진출함으로써 진화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잘못 다루었다는 자각이 찾아왔다. 우주센터 근처의 마을 주민들이 시간 감각에 혼란을 겪는 현상을 통해, 인간의 정신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연약한 연속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프케네디와 플로리다 전역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염 지역이 되고 말았다. 마치 네바다와 유타의 핵실험지처럼.

_ 585쪽, 「우주 시대의 기억」에서

"로저, 당신 아내는 석 달 전에 죽었어요. 사망증명서 사본을 보여 줬잖아요."

"그래요, 죽었죠." 세퍼드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단편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전체 시간 속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일단 한 번 살았던 사람은 그 누구도 진짜로 죽을 수 없으니까. 나는 아내를 찾아낼 겁니다. 그녀가 여기서 내가 자신을 되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는 침실 사방에 가득한 사진들 쪽으로 가볍게 손짓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은유는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

_ 644~645쪽, 「근미래의 전설」에서

차례

수용소 도시
12번 트랙
크로노폴리스
시간의 목소리
고더드 씨의 마지막 세계
스타스 가, 5번 스튜디오
빌레니엄
시간의 정원
스텔라비스타의 천 가지 꿈
감시탑
잠재의식 인간
재진입의 문제
사라진 레오나르도
종막의 해안
거인의 익사체

다운힐 자동차 경주로 살펴본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암살 사건
지상 최대의 텔레비전 쇼
웨이크 섬으로 날아가는 꿈
저공비행
어느 절대자의 탄생과 죽음
유타 해변의 어느 오후
우주 시대의 기억
근미래의 전설
미확인 우주정거장 조사 보고서
꿈 화물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 후기
해제
옮긴이의 말 파괴된 세상의 예언자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 연보

제임스 그레이엄 밸러드
(James Graham Ballard, 1930~2009)

'우리는 거대한 소설 속에 살고 있다.'

'영국의 국보國寶'(《가디언》), 20세기 후반 세계문학사에서 전대미문의 독창적이고 예언적인 목소리로 여겨지는 J. G. 밸러드는 1960년대 SF 뉴웨이브 운동을 견인하며 소설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함으로써 현대문학을 재정의했다고 평가받는 작가이다. 고도의 상징성과 시각 이미지를 다용한, 디스토피아적인 예지로 가득 찬 전인미답의 전위적인 작품들은 '현대'에 대한 세계인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밸러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0년 전 중화민국 상하이 조계租界에서 태어났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민간인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종전 후 영국으로 송환된다. 대학에서 의학과 영문학을 공부했으며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훈련을 받았다. 치외법권에서 보낸 유복한 유년기, 전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투했던 수용소에서의 사춘기, 전후戰後 영국에서의 청년기—인생의 전반前半을 비/초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의 극한상황에서 살았던 밸러드는 개인과 사회의 무수한 파국을 마주하며, 소설은 이미 거기에 존재하므로 작가의 임무란 리얼리티를 창조해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순으로 가득한 20세기 후반의 인간 존재 방식을 표현하려 했다.

그는 현대 문명의 병리학적인 잔혹상—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소비사회, 미디어 과잉으로 인한 생활의 통제, 음모론이 판치는 정부 간 이데올로기 담론, 과학기술의 비인간화 등을 동일한 폭력의 다른 형태로 간주하고,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다 '에로스'와 '타나토스' 같은 강렬한 이미지에 매료되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냉정하며 분석적인 시선으로 묘사했다. 또한 외부 환경과 인간의 내면에 펼쳐지는 의식/무의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SF의 우주 개념을 '내우주'로 전환시킴으로써 문학성을 꾀했다. 이와 같은 밸러드만의 문학적 특수성은 형용사 '밸러드풍Ballardian'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사전에 등재되었다.

‘나는 나의 작품을 경고로 본다. 나는 길옆에 서서 “속도를 줄여!”라고 외치는 바로 그 남자다.’

옮긴이 조호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했다. SF/판타지 단편과 어린이용 과학 도서 번역을 주로 하였고, 현대 해외 문학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몬터규 로즈 제임스』『레이 브래드버리』『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마이너리티 리포트』『아마겟돈』『타임머신』『컴퓨터 커넥션』『타임십』『장르라고 부르면 대답함』『SF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런던의 강들』『소호의 달』등이 있다.

100만 번대 거리에서 들려오는 한낮의 대화. 「수용소 도시」 "틀렸어. 다시 추측해 보게." 「12번 트랙」 재판은 다음 날로 잡혔다. 「크로노폴리스」 나중에 파워스는 종종 휫비를, 그리고 그 생물학자가 빈 수영장 바닥에 새겨 놓은 기묘한 자국을 떠올렸다. 「시간의 목소리」 딱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천둥소리가 고더드 씨의 신경을 거슬렀다. 「고더드 씨의 마지막 세계」 여름 내내 버밀리언샌즈에 저녁이 내리덮일 때마다, 내 아름다운 이웃 여인의 정신 나간 시구절이 스타스 가 5번 스튜디오에서 흩날리며 날아와, 사막을 가로질러서 내게 도착했다. 「스타스 가, 5번 스튜디오」 하루 온종일 그리고 때로는 새벽에 이르기까지, 워드의 비좁은 칸막이실 공간 바깥 계단에서는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났다. 「빌레니엄」 저녁이 다가와 팔라디오풍 저택의 거대한 그림자가 테라스를 가득 메우면, 액설 백작은 서재를 떠나서 시간의 꽃들 사이로 뻗은 하얀 대리석 계단을 내려갔다. 「시간의 정원」 요즘은 버밀리언샌즈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 이름을 들어 본 사람조차 별로 남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스텔라비스타의 천 가지 꿈」 다음 날이 되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시탑의 움직임이 부쩍 늘었다. 「감시탑」 "광고판이에요, 선생님! 광고판 보셨어요?" 「잠재의식 인간」 그들은 온종일, 때로 프로펠러를 멈추고 들어 올려 엉켜 있는 수초를 잘라 내면서 꾸준히 상류로 올라갔다. 「재진입의 문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라졌다는 또는 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절도를 당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은 1965년 4월 19일 아침이었다. 「사라진 레오나르도」 무너진 벙커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는 밤마다, 트레이븐은 석호가에 부서지는 물결 소리를 들으면서 활주로 끝에서 엔진을 예열하는 거대한 비행기의 소리를 떠올렸다. 「종막의 해안」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거인의 익사체가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해변으로 쓸려 올라왔다. 「거인의 익사체」 시작은 오즈월드였다. 「다운힐 자동차 경주로 살펴본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암살 사건」 2001년에 발견되어 실용화된 시간 여행 기술은 여러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텔레비전 방송이었다. 「지상 최대의 텔레비전 쇼」 멜빌이 품은 꿈, 웨이크 섬으로 날아가는 꿈은—물론 그의 온갖 장애들을 생각하면 부질없는 야심일 뿐이기는 해도—해변 방갈로 위편의 모래언덕에서 추락한 비행기를 발굴하면서 다시 부풀어 올랐다. 「웨이크 섬으로 날아가는 꿈」 "저 작자는 혼자서 정신 나간 도박을 즐기고 있는 거야." 「저공비행」 1980년의 봄과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범상치 않은 소문 하나가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어느 절대자의 탄생과 죽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유타 해변이라는 거 알아?" 「유타 해변의 어느 오후」 저 기묘한 조종사는 하루 온종일 골동품 비행기를 끌고 버려진 우주센터 위를 날아다녔고, 격렬한 소음은 플로리다의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우주 시대의 기억」 황혼 녘까지도 셰퍼드는 여전히 추락한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근미래의 전설」 행운이 따른 덕분에 이곳 버려진 우주정거장에 불시착할 수 있었다. 「미확인 우주정거장 조사 보고서」 석호 위로 태양보다 더 생생한 팔레트에서 온갖 색깔을 받으며 새로운 생명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다. 「꿈 화물」